

발행	일	민	병	천
집행	인	차	수	련
주	국	이	익	만
집	장	이	석	성
편집	장	이	석	성

편집인: 오승환
 발행인: 오승환
 대표이사: 오승환
 부대표: 오승환
 편집장: 오승환
 부편집장: 오승환
 사서: 오승환
 전화: 26(2260-3492)
 FAX: (02)279-1270
 780-714 경부 경주시 석장동 707(2770-2057)

분당 한방병원 기공 지상5층 지하2층 규모

동국분당한방병원 기공식이 오복원 이사장, 민병천총장, 황명수 총동창회장 등 학교당국관계자와 김종 1 분당구청장등 지역주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27일 거행됐다. 김인홍 의료원장의 경과보고에 따르면 지난 92년 3월 의료시설 용지매입승인을 시작으로 병원신축추진계획 설계, 성남시 건축허가를 거쳐 지난날 12일 주식회사 서광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신축되는 병원은 연건평 2천2백45평에 지상5층 지하2층의 규모로 주요시설로는 1백병상에 강의실, 교수연구실등이 들어서게 된다. 발원문 남쪽에 이어 오복원이사

장은 치사를 통해 "이념적인 종교 구원이 아니라 실질적 구원이 될수 있는 부처님의 구제요법에 의해 건립하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민병천총장은 "양방과 한방을 동시에 발전시키는데 의미를 두며 불교정신에 입각하여 자비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황명수 총동창회장은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권장하겠다"고 말했으며 "성실히 공사에 임하겠다"는 서광건설 대표의 인사에 이어 시삽으로 기공식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이번 동국분당한방병원신축 공사는 약 1년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 27일 열린 동국분당한방병원기공식에 참석한 오복원이사장, 민병천총장, 황명수총동창회등이 시삽을 하고 있다.

졸준위 위원장 선출 다음주 앨범 공개입찰

제6대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 위원장에 김정호(경제4)군이 지난 28일 4학년 각과대표들의 투표로 찬성24표, 무효2표를 얻어 당선됐다. 그동안 위원장은 물론 집행부도 꾸려지지 못했던 제6대 졸준위는 4학년과대표들의 모임도 계속 무산되자 지난 17일 있었던 총문위에서 4학년 각과대표들이 직접 위원장을 선출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졸준위는 이번주내로 대상업체를 2,3곳 선정해 요구사항등을 업체에 전달하고 다음주경에 공개입찰할

해서 셋째주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정호위원장은 "졸준위 위원장은 앞으로 4학년과대표의 직선제 실시로 대표성을 인정받도록 회칙이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사업진행이 좀 늦은감이 있으나 최선을 다해 앨범선정원칙등에 있어 선례를 남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졸준위는 오는 3일 각과과대 상임대표모임을 갖고 앨범제작업체조사 결과보고, 공개입찰시 선정기준등을 정하고 집행부구성에 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개교 1백주년 사업기금 10억돌파 96년까지 1백억 목표로 계속추진

개교1백주년기념사업본부(본부장=박동기)는 개교1백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인 학술문화관련행사를 위한 모금액이 지난5월6일초 10억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오는 96년까지 1백억원을 목표로 하는 이 모금운동에는 오복원이사장이 금일봉, 황명수총동창회장이 금일봉을, 직원노조가 1억원, 박현성 재단이사 1천만원을 기탁함으로써 재단, 동창회, 교수, 직원등 동국대 재민체제가 모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모금액이 10억원이 넘는 데 대해 민병천총장은 지난달16일 교수위원회 석상에서 "모든 교수 직원이 대외모금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직원들은 장기급여 분할공제 형식으로 60%이상이 동참하여 교수 1억9천만원, 직원 1억6천4백만원을 모금한 바 있다. 또한 대학원은 1백55만원, 경영대학원은 2억6천여만원, 행정대학원은 1억6천여만원, 산업기술대학원은 1천3백여만원을 기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념사업본부는 홍보판플렛을 더쳐 재단, 동문과 신도들의 참여를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입을 오는 25일 학원관(301,302,401,402)에서 실시한다. 선발대상은 재학생과 복학생으로 원서는 오는 3일까지 계산고시 학사 사감실에서 접수한다.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사법고시=전학년 공통으로 외국어, 헌법, 국사과목을 치르며 1학년은 민법총칙, 2학년은 민법총칙, 형법, 문화사, 경제학, 3-4학년은 민법, 형법, 문화사, 경제학이 추가된다. △행정고시=전학년 공통으로 영어, 헌법, 국사과목을 치르며 2-3-4학년은 민법총칙이 추가된다. △외무고시=전학년 공통으로 영어, 헌법, 국사과목을 치르며 2-3-4학년은 정치학이 추가된다.

보리수 법거량(法學量)

역대 조사(敎師)스님들은 공부되어 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넘어야 되는 시험이 있는데 이를 법거량이라고 한다. 물론 그들이 후일 일가(一家)를 이루어 제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가르치고 있다. 일제시대 조선불교의 법통을 굳건히 지킨 송만공(宋滿空)스님은 정음 태인 출생으로 30세에 덕숭산 정혜사의 선원조실스님이 되어 수많은 남자(衲子)를 배출하였다. 하루는 도람에 나와 망중한을 즐기고 있노라니가 젊은 수행승이 정규하듯이 외치는 외마디는 "만공아! 만공아!"였다. 만공스님은 어이가 없어 그 수행승에게 다가가 "네 이름! 어디서 합무로 내 이름을 부르느냐?"고 힐난 하였다. 젊은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자숙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주에 가득한 만공을 부르는데 어찌 조실스님은 명자(名子)에 고달려 화를 내신단 말씀입니까?" 하였다. 당대의 절승 만공스님도 아차하는 순간에 초학자에게 여지없이 한방망이 얻어 맞은 꼴이 되었고 말았다. 선에서는 무서우리만큼 언어나 문자가 고달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만약 만공스님도 선인이라는 문자에 얽매지 않았더라면 앞에서와 같은 경우는 필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법거량은 항상 조실스님이 초학자에게 내리는 시험이 아니고 초학

자의 번득이는 예지에 의해 조실스님이 간혹 당하기도 하는 것이다. 인간의 생각이나 마음의 표상을 상대에게 전하려면 적어도 문자 언어의 일정한 약속과 논리로써 하기 마련인데 선에서는 그러한 형식적 방법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에 있어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하는 형식이나 방법이 과연 문자나 논리적 설명을 떠나 실행되어 왔는가 하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문자나 언어를 쓰지 그 메세지는 언어, 문자를 떠난 실상(實相)을 전달 하는 것이다. 저 유명한 영산회상에서의 열화미소가 부처님과 제자 가섭 사이에 실상을 전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법거량은 비단 선가(禪家)의 가풍으로만 내려오는 전유물이 아닌 듯 하다. 이 교정에서도 존각을 닦아 법거량이 이루어 지고 있다. 교수의 교수방법이 학생에 의해 측정되고 학생의 학습태도는 교수에 의해 엄연히 헤아려지고 있지 않은가. 자기 업무능력도 누군가에 의해 점검되고 있는 것이고, 인간의 진실되지 못한 언행 또한 회수를 거듭함에 따라 반드시 그 면면히 드러나기 마련이다. 대해가 감물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수용하는 아량을 지녔지만 선인이라는 문자에 얽매지 않았더라면 앞에서와 같은 경우는 필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법거량은 항상 조실스님이 초학자에게 내리는 시험이 아니고 초학

崔玄覺

신규 교수 초빙 접수마감 오는 10일까지 학과심사

교무처(처장=정병조·국민윤리)는 신규교원 초빙 용모자 현황을 발표했다. 각과대 15개 학과에 용모자 인원은 총 1백21명이다. 각과 1명초빙으로 최고경쟁학과는 영문과 외국인 영어회화분야로 21명이 지원했고 최저경쟁학과는 불교학과 불교경제론 분야로 1명이 지원했다. 오는 10일까지 학과심사를 거친 후, 총장, 부총장, 단과대 학장의 면담이 있고 인사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승인으로 최종결정되는 교수 초빙은 오는 7월중순쯤에 완료된다. 지원자 중 분교 출신은 30%미만으로 집계됐다. 한편 경주캠퍼스는 5개과 학과에서 초빙공고를 냈으나 지원자는

모두 12명뿐이고, 특히 한의대·의대는 9개 전공분야중 3개분야에 한명씩 용모에 지원률이 저조하다. **회계사 장학선발** 계산고시학사(지도교수=연기영·법학)는 제 2학기 공인회계사반 장학선발시험을 오는 12일 동국관(M208, 209)에서 실시한다. 시험과목은 1:2:3학년, 대학원생 공통으로 영어, 경제원론을 치르고 2학년은 상법, 회계권리, 경영학(I), 3학년은 상법, 재무회계, 원가회계, 경영학(II), 세법, 대학원생은 상법, 재무회계, 원가회계, 경영학(II), 세법, 회계감사가 추가된다. 응시원서는 오는 8일까지 한전수(회계학)교수 연구실에서 접수받는다.

국문과 동문회 총회 강기진전문 회장선출

국문과 동문회는 창설 50주년 기념사업과 장학기금 확충등 모교 발전방향 모색을 안건으로 지난 5월 26일 다량관 교수식당에서 정기총회를 가지고 강기진(경기대 국문과 교수·국문 59졸)동문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화학과 40주년 기념 학술 강연회** 화학과 개설 40주년 기념 학술강연회 및 기념행사가 지난 27일 화학과 동문과 민병천 총장 등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시장학생 선발

계산고시학사(지도교수=연기영·법학)는 2학기 고시장학생 선발시험을 오는 25일 학원관(301,302,401,402)에서 실시한다. 선발대상은 재학생과 복학생으로 원서는 오는 3일까지 계산고시 학사 사감실에서 접수한다.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사법고시=전학년 공통으로 외국어, 헌법, 국사과목을 치르며 1학년은 민법총칙, 2학년은 민법총칙, 형법, 문화사, 경제학, 3-4학년은 민법, 형법, 문화사, 경제학이 추가된다. △행정고시=전학년 공통으로 영어, 헌법, 국사과목을 치르며 2-3-4학년은 민법총칙이 추가된다. △외무고시=전학년 공통으로 영어, 헌법, 국사과목을 치르며 2-3-4학년은 정치학이 추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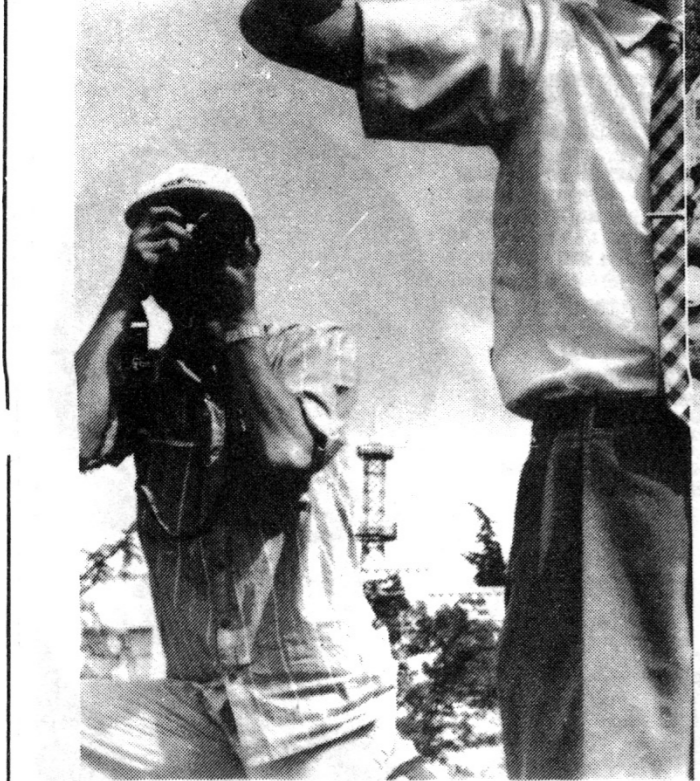
교수동정

▲한봉희(법학)는 오는 6월3일 오후6시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회갑기념 '현대 민법의 과제와 전망'의 논문집 봉정식을 갖는다. ▲김인제(경제학)는 오는 6월9일 오후7시 신라호텔 2층에서 회갑기념 논문봉정식을 거행한다. ▲조희영(경제학)는 지난 5월27일 타워호텔에서 열린 '한국아테나위 학술교류회의' 94정기총회에서 3대 회장으로 선출. ▲김태호(조경학)는 오는 7월5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8개월간 중국 북경 정화대학 건축대학원에서 '역사도시 설계연구'에 대한 연수를 받는다.

동국대학(원)생 외산담배 대응방안 논문형상 공모

1. 응모자격: 동국대학교 재학생 및 대학원생(전공불문)
 2. 공모주제: 가. 외산(일본)담배 시장 잠적 대응방안 나. UR관련 외산담배 시장방어의 타당성 다. 20대 젊은 층의 외산담배 선호 문제점 및 해결방안
 3. 논문분량: 200자 원고지 50매(A용지 8매) 내외
 4. 응모기간: 1994년 6월13일(월) ~ 6월22일(수)
 5. 작품제출처: ①학생복지위원회 조직사무부(TEL:260-3681) ②동대신문사 편집국(TEL:260-3492)
 6. 입상자발표: 가. 1994년 7월 입상자에게 개별통지 나. 1994년 8월24일 동대신문에 게재예정
 7. 시상: *대상(1명): 상장, 상패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1명): 상장, 상패 및 상금 50만원 *장려상(2명): 상장, 상패 및 상금 30만원 *입선(20명): 상장, 상패 및 상금 10만원
 8. 기타: *논문 제출자 전원에게는 사은품 증정 *용모시 신청서(소정양식) 및 제과증명서 제출 *응모논문은 주회자 소유
- 주최: 동대신문사·제10대 학생복지위원회
후원: 한국담배인삼공사 서울지역본부

청춘의 가슴에 감동을 담자!



질문1. 한총련 출범식에 은 계기?
질문2. 출범식을 보고 느낀 점?
질문3. 한총련 출범식을 광주에서 개최하 게된 것에 대한 느낌 또는 견해?
질문4. 김영삼 정권에 대한 평가는?
*익명(56세, 상임)
1. 학생들은 통일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실천적 행동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또 '일시적인 행위로만 국한되지 않는가'를 지켜보기 위해 참가.
2. 출범식은 학생들의 조직력과 질서

의식이 많이 부족한것 같다. 또 행사가 너무 화려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
3. 시민들은 이번 출범식이 잘되길 바란다.
4. 남과북이 UN통시에 가입하고 각자의 입김이 나온다는 것은 둘다 각각의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통일문제를 제3자의 힘을 빌려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김정은은 시대를 여행하고 있다. 한총련은 시민들에게 올바른 통일관을 홍보하고 지지받아 현 정권을 반성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체 조직의 힘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익명(63세, 남)
1. 한총련 출범식을 학생들이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며, 참 보고 싶었다.
2. 칭찬하고 싶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찾지못한 5월 문제의 진실을 밝혀 주었으면 한다. 이제 학생들이 할수 있는 일이다.
3. 5월 문제와 연관시켜 한반쯤 열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기도 적절하다고 본다.
4. 아직 김영삼정권이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아 잘 모르겠으나, 노태우 정권까지 밝혀지지 않은 5월문제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이앞장서길 바란다.

제36기 수습기자 추가모집

대학원생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본사에서는 우리시대를 예리한 필봉으로 파헤쳐 나갈 의식있는 남녀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 ①모집인원: 서울 및 경주캠퍼스 00명
- ②응시자격: 1학년 남·여 재학생
- ③모집분야: 일반 및 만화·사진기자
- ④제출서류: 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판사진 1매 (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 ⑤원서접수: 서울 6월 2일(목) 오후 4시까지 경주 6월 2일(목) 오후 4시까지
- ⑥시험일자: 서울 6월 2일(목) 오후 5시 경주 6월 2일(목) 오후 5시
- ⑦시험과목: 1차필기-상식·논술(만화·사진지원자는 필기) 2차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함
- ⑧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 ⑨시험장소: 학원관 J201(서울캠퍼스) 원효관 A301(경주캠퍼스)

※ 학생기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장학금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동대신문사

오늘을 사는 동국인

중구예술제 준비를 위한 기획실팀



“대학과 지역주민의 단합의 장이 될겁니다” 제1회 중구예술제(가칭) 준비를 위한 기획실의 이태범(철 89)군은 오는 9월초로 예정된 중구예술제의 의의를 한마디로 얘기한다. 기획실에는 기획실장인 이근외에도 집행국장인 황재우(연명 4)군, 홍보국장을 맡고있는 김영란(대학원연명 2)학기양, 이종필(미술 4)예술대 학생회장을 주축으로 각본부에서 10여명이 분주히 뛰고 있다.

그동안 중구지역만의 문화행사를 고민해오다가 지난2월 우연히 가진 술자리에서 ‘일한번 저질러보자’고 의기투합했다는 기획실팀의 하루는 오전8시 회의로부터 시작된다.

현재 교수 35인 직원노조, 학생회등으로 발기인이 구성되고 기획안이 거의 완성된 상태로 실무추진위원회가 꾸려지는 것만 남았다. 학교측은 물론 중구청, 중부경찰서도 호응을 보이며 적극적인 후원을 약속한 상태라고 이종필 학생회장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열린대학’의 이미지를 정립하고 재교육의 장으로 동국대가 자리매김 될 것”이라며 “동국중흥관전지도 무기한 연기된 시점에서 중구예술제가 동국인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보국장인 김영란양은 “신촌문화축제나 대학로축제 등 여타 지역행사와 달리 지역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주부미술대학, 초중고 백일장, 노인초청잔치, 하숙집아주머니 노라자랑, 영화학교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다양하다.

중구예술제를 준비하며 이들이 겪는 어려움도 크다. 밤늦게까지 컴퓨터로 세부기획안을 치다가 도둑으로 몰렸다는 이태범동문은 새벽4시까지 수위실에 불들려 이너라 혼났다고

전시, 공연, 학술행사분과등 현재는 동아리와 예술대에 집중되고 있지만 각학과대가 자신들의 기획으로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른곳과 연계해갈 대외협력국도 시급하다고 한다.

올가을 중구인의 큰잔치가 될 최초의 시도, 동국인이 주체로 선다는 점에서 중구예술제에 거는 기대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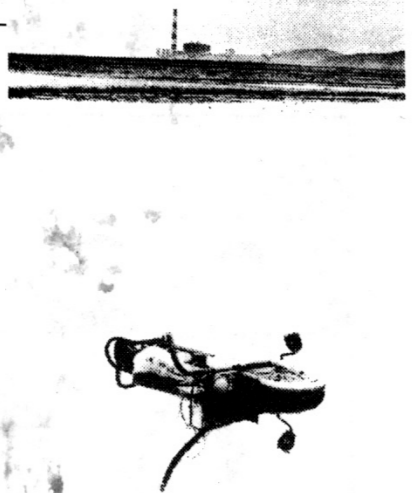
(김소영 기자)

조대 사진

그리고...상심

윤기철

(공과대 토목공학과 동그라미 사진연구회)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하이텔 (ID:2603491, press11)

교직원은 단순 고용인이 아니다 학생들의 편의배려 권익보호해야

연구실에 있는데, 같이 공부하는 학생이 꽤나 언짢은 얼굴을 하며 연구실에 들어왔다. 그 이유는, 11시40분경 도서관 대출실에 들어가서 책을 찾은 후, 대출출처를 받고자 하니,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시계를 보니 12시5분! 바로 2분전에 두 사람이 대출을 나갔고, 그 담당 직원도 바로 옆에 있었는데, 대출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하는 것이었다. 이에 연구실 사람들은 그동안 느꼈던 생각들을 한마디씩 던졌다. 결코 학교행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아니었다.

교직원들의 권익! 이 부분을 생각하면 필자는 늘 당혹감을 느낀다. 즉, 학교에 있어 교직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과연 교직원은 학교에서

일하는 단순한 고용인가? 그리고 학생들은 그들을 고용한 고용주인가? 아니면 학교라는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인가? 이러한 고민들은 학생행정을 맡은 교직원과 행정적으로 만나게 될 때, 가끔씩 느끼는 당혹감에서 나오는 것이다. 교직원은 학생들의 편의에 대한 배려와 권익을 보호하면서 교직원 자체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학교의 주인으로서 있는 것이다. 즉, 이는 한 예에 불과한데, 현재의 모습들은 교직원의 권익이 주장되고, 그 테두리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행정적으로만 제시되지 않은가 한다. 그에 대한 예는 여기서 굳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방학에 즈음하여 건의사항의 일환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방학때가 되면 일정기간(방학의 대부분)학교행정은 1시까지만 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서관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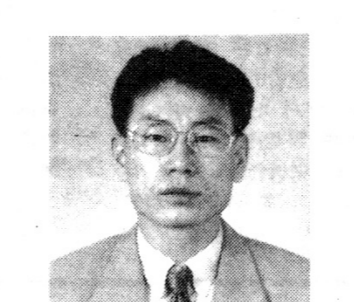
한 국회의원의 편지 제천지역 농촌활동에 감사해 고추함포기 심는 마음으로 힘을 모을때

회구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서도 지난 5월초, 학생여러분이 나라를 사랑하고 농촌을 아껴 주시는 뜻을 간직하고 제천지역 농촌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일손을 크게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저희 지역구에서는 칭송의 여론이 자자하며 당해 지역구 국회의원 저로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촌이 노동인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노령화, 부녀화되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음을 생각할때 여러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은 참으로 뜻깊다 할 것입니다. 또 또한 농촌에서 출생하여 잔병이 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국제적 조류로 다치고 있는 개방 인력이 밀려오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모두가 한 포기의 고추를 심는 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우리 농촌의 미래는 어둡지않고 밝아갈 것입니다.

목경찬 (대학원 불교학과 석사과정)

동/문/칼/럼

진정한 휴머니즘의 회복이 관건이다



허정수 (주택경제연구원실대리-경제84졸)

5-6공화국 시절에 한때 유행이었던 말이 있다. '신문은 보되 사회면은 보지 말라라. 사회면은 보되 정치면은 필히 빼놓고 보라. 그러나 요즘은 아예 '신문은 보지 말라라'로 바뀌었다고들 한다.

특히 값비싼 녹음과 인삼등으로 몸보신시켜 힘세고 튼튼하게 길러 놓았더니 그 힘으로 자기부모를 죽인 박도군의 사건 이후 거리마다 들려오는 장탄식과 비수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근심스런 두런거림으로 귀가 아플지경이다. 당국은 '거국적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산하다고 한다.

도대체 왜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그리고 '거국적 대책'의 효과는 과연 '나타날' 것인가?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들 생각하는 모양이다. 왜냐하면 이런 병리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개인의 품성이나 사회교육적 차원의 부분적인 오류라기보다는 사회구조 전체적인 측면에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를 꼽는다면 자신의 노동생산물로부터의 '소외(alienation)' 심화가 그에 달해 있다는 것이다. 존각을 다루며 진행되고 있

미, 무가치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생산과 소비의 전과정에 걸쳐 전인적으로 관여하며 그 속에서 체험했던 과정을 통한 자기실현의 기쁨과 노거의 '생활공동체'를 동경하여 향수에 젖어들기도 하지만 생산과 소비의 전과정을 유일무이하게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수단인 돈의 소유에 강한 집착을 나타내게 된다. 전자는 관념과 정서의 차원에 속하며 후자는 구체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현실의 차원에 속한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동안 너무나 진부하게만 여겨온 휴머니즘(humanism)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할 것이다. 인간행위의 추동력이 돈이 아니라 진정한 휴머니즘의 회복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휴머니즘의 회복은 오직 인류전체의 공동의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역사적 공동과업에 동참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고도산업사회의 독특한 인간소외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싸움이며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회,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연대의식의 회복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도서관을 진단한다' 문제제 환기에 제 몫

제115호 동대신문은 1면 기사부터 시작해서 시사사단, 사설, 그리고 경주보도면에 까지 한층려 관련된 기사들이 신문은 운동도 배하다 시피 실렸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한층려에 관한 종합적인 기사들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지금의 한층려는 많은 학우들의 지나친 개인주의 성향으로 집단주의의 조직에 관한 문제등 많은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호에는 이런 종합적인 문제점을 한번 언급하여 이번에 입학한 새내기들이 이것을 전지한 것이 이번 출판식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동대신문의 바른 모습이 아닐까!

해설기사인 '도서관을 진단한다'가 계속 실리고 있다. 체계적인 분석과 뛰어난 평가로 학내 많은 학우들에게 도서관의 문제점을 다시한번 환기시키는데 제 몫을 특목해 해냈다 본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은 이 기사를 보면서 경주 도서관의 내용은 언제 나오나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성있는 기사는 동국 전 학우의 사랑을 받는다고 확신한다.

남궁원 (농과대 농경과 분사모니터)

목역골

축하합니다

- 권아 생일 축하합니다. -93 김원정
손짓사랑회 수화기초반 8기 26명의 수료 축하합니다. -어느 8기 사랑동이가
김경진군의 폐유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왼쪽은 조심하시길. -홍조 총무님이
역교과 김주희(7일), 이지연(15일)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Eu eka
94 미국월드컵 공식응원단으로 뽑힌 백상응원단 축하드립니다. -총무부장 준
K.C.C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더불어 5분 스피치 대회 우승기 재탈환도... -31대 글씨 못 쓰는 누구가
감사:배화 Joint 축하합니다. 앞으로 잘해 봅시다 -감서 서희장
회경이! 생일축하해 한마디만 할께. 나가면 죽어(대응), 알고 지내던 한 친구를 남에게 양보할 수 없어. 너가 다시 웃는 날으로 인사할

남을 기다린다 (수정)

- 36기 동기를
늦었지만 5월27일에 생일을 맞은 경진에게 축하한다고 전합니다. -어느 선배A
음력 4월10일 은영이의 생일을 축하해요! 은영아!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 -94 공과과 고등학교 짝지가
경축- 동대응원단 백호기야 구대회 응원상 수상.
사랑하는 우리 36기 여러분! 힘내시고 방송국 생활 열심히 하길 이 선배가 빌게!! -DVBS 35기 아내문서
대귀(6), 수규(9), 두진(12) 생일 축하해 -동계 조사 연구회 26기 일동
6월6일 댄대귀대귀대귀야아 황대귀 생일 축하합니다. -자유시대 보컬 신상오

동/악/광/장

그리고...

- 다. 더욱 좋은 성적 바랍니다. -백상
하자 서로 Fair Play를 하자. -서
회국본과의 단합을 위해서 -국어국문학과 혁신94
동국미전 전시회 감상 잘하고 갑니다. -유병희, 이금자
우리검도부의 춘계시합이 6월6일에 있습니다. 동악여러분의 많은 응원 바랍니다 Fighting!! -24기?
현여울 하게 Music Camp가 6월 중순이예요 많은 참여와 후원 부탁 바랍니다. -어떤 아배가
제38회 농어촌연구실 돌잔치 6월5일 오전11시 학생회관 3층 상설 전시장 (오전), 만해관강(오후)
5월23일, 해화관엔 벤취에 놓고 온 다이어리를 찾아주시는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보 3

알립니다

- 성효가
성훈이의 5월27일 생일을 축하합니다. -8만원 빌을거였는데
기습아! 지난 29일 너의 생일을 늦게나마 축하합니다. -한샘만
정숙이 누나 생일이 4일이예요 축하 해주세요. -메롱이
수고하셨습니다
시선의 시화전 '우리가 다시 하나의 강을 건너야할 때'를 무사히 끝마칩니다. 시선동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선 회장
제2기 한층려 출판식을 사수한 인문대-상경대-법정대 人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Press

온방골

- 축하합니다
회계학과 2학년 박준환의 군입대를 축하해!! -K-Y-
전산2년 태호의 스물한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이전 나이 트에 가도 그냥 통과돼요 -재원이가

축하합니다

- To 성욱
오늘 (6-1)우리 Group Sound 공연하는데 보러오라 -춘이 형
1994년 5월23일 월요일 수업중에 우린 강의실을 옮겼다. 감사하는 소리(드림)때문에... 학교당국은 각성하라! and 자연대1층 카피서관기고장. 학생회는 (학복위)즉각 교체해 달라. -자연대 1층의 '공자'가
전산통계 1년 경일이 너 동문 회때 보자. 그때까지 소식만 없어봐라. -전산90 일동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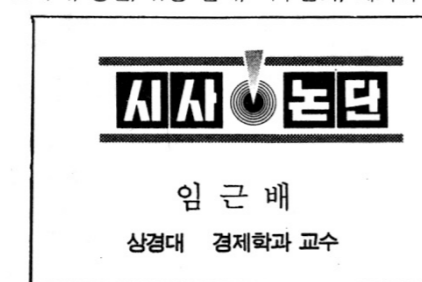
- 가 교과 '도회'의 빠른 완쾌를 빌며... -가교 94 일동
기훈이가 드디어 군에 간대요. 몸건강히 지내기를 빌다. P.S 나도 곧 따라간다. -서부동 발안개
우리 조경학과 화장실에는 시가 있어요, 여학생회에서 준비하는 데 우리 후배들 너무 예쁘고... -91 언니가
결핵의 일일호프 적자인지 흑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추억이었어요. -94 꽃재지
기훈이형, 3년뒤에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광명-민욱이가

UR총격이 채 가지지도 않은 지금 우리는 국제환경규제라는 또다른 시련에 직면해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각국들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국가에게 무역제재조치를 강구하는 등 환경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 환경기술과 투자수준은 낮고 산업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 UR이상의 충격을 몰고 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기후변화협약과 더불어 지구온난화협상과 기상이변 등을 초래하는 이산화탄소 및 아황산가스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2천년까지 90년 수준으로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감을 위하여 탄소세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 및 관련산업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몬트리올 의정서의 채택으로 염화불화탄소(CFC)의 사용이 금지되어 CFC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않으면 비싼 대체물질을 수입하게 되어 CFC 사용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며, 특정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금지하는 바젤협약 또한 폐기를 처리비용의 증가를 수반하여 관련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같은 국제환경협약을 통한 환경규제조치 이외에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이 그들에 비하여 낮은 환경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비용상의 열위를 만회하기 위하여 환경상계관세의 부과를 추진하고 있어 그들 주장대로 상계관세가 부과되면 우리의 수출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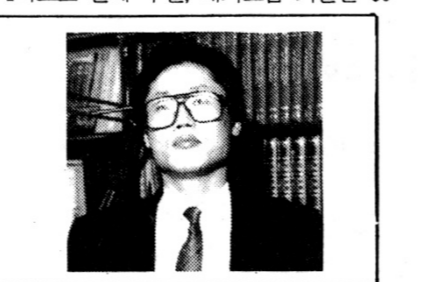
그밖에 선진 각국들은 개별적 환경규제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기준미달상품의 수입금지를 추진하고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 및 연료효율의 기준을 강화하며, 유해가스 배출원에 대한 오염방지장치의 장착과 저공해 휘발유 생산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생산자가 포장폐기물을 회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환경마크 부착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폐기물 재활용 의무비를 설정하는 등 환경규제 노력을 고쳐삼대국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규제장벽

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국제환경규제 현실속에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국제표준기구(ISO)가 오는 96년부터 도입·시행키로 한 '환경경영국제규격' 제도에 우리기업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 가이다. ISO 1만8천시리즈로 불리는 이 제도는 연구개발에서부터 원료채택, 생산, 유통·판매, 사후관리, 폐기처



임근배
상경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상품은 ISO 9천시리즈 획득 자체도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 그런데 ISO 9천시리즈에 비해 보다 강화된 ISO 1만8천시리즈의 획득은 현재의 환경기술과 투자규모로 볼때 획기적인 대책없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 환경기술수준은 미국, 일본등 환경선진국의 기술수준을 1백으로 볼때 수질, 대기오염 기술은 60~



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국제환경규제 동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기업은 환경오염의 사후처리기술의 개발보다도 공정개선, 저공해제품의 생산과 폐기물의 재이용 등을 포함하는 사전예방기술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겠다. 한편 기업은 국제환경규제를 공해방지시설, 에너지 절약형 장치, 환경정보시스템, 공해측정기기 등과 관련한 환경산업에 대한 진출의 기회로 삼거나 저공해자와 대체에너지의 개발을 앞당겨 경쟁력 우위의 발전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는 전회투부의 슬기를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조정함과 더불어 경제유인적 환경규제정책을 도입하여 기업이 자발적이고도 비용절감책으로 환경을 보전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아울러 조세제도를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현재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에너지 공급 구조를 현재의 석탄, 석유등 화석연료 중심에서 청정연료 중심에서 전환시켜야 자연의 재활용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환경규제는 국내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쟁력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기 때문에 기술수준이나 자금과 정보력 등 경영환경전반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환경규제조치가 발동될 때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결국 경쟁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행정성과 경제적 지원에서 중소기업의 환경투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된 수출이 감소하게 되는 선에서 그치지만 환경장벽을 극복하지 못하면 수출은 완전히 불가능해진다. 이제 기업의 존립은 환경보전에 달려 있다. 경쟁력있는 환경경영체제의 조기구축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이며 환경적합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로 국제환경규제장벽에 적극 대처하여야겠다.

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국제환경규제 동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기업은 환경오염의 사후처리기술의 개발보다도 공정개선, 저공해제품의 생산과 폐기물의 재이용 등을 포함하는 사전예방기술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겠다. 한편 기업은 국제환경규제를 공해방지시설, 에너지 절약형 장치, 환경정보시스템, 공해측정기기 등과 관련한 환경산업에 대한 진출의 기회로 삼거나 저공해자와 대체에너지의 개발을 앞당겨 경쟁력 우위의 발전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는 전회투부의 슬기를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조정함과 더불어 경제유인적 환경규제정책을 도입하여 기업이 자발적이고도 비용절감책으로 환경을 보전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아울러 조세제도를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현재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에너지 공급 구조를 현재의 석탄, 석유등 화석연료 중심에서 청정연료 중심에서 전환시켜야 자연의 재활용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환경규제는 국내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쟁력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기 때문에 기술수준이나 자금과 정보력 등 경영환경전반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환경규제조치가 발동될 때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결국 경쟁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행정성과 경제적 지원에서 중소기업의 환경투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된 수출이 감소하게 되는 선에서 그치지만 환경장벽을 극복하지 못하면 수출은 완전히 불가능해진다. 이제 기업의 존립은 환경보전에 달려 있다. 경쟁력있는 환경경영체제의 조기구축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이며 환경적합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로 국제환경규제장벽에 적극 대처하여야겠다.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된 수출이 감소하게 되는 선에서 그치지만 환경장벽을 극복하지 못하면 수출은 완전히 불가능해진다. 이제 기업의 존립은 환경보전에 달려 있다. 경쟁력있는 환경경영체제의 조기구축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이며 환경적합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로 국제환경규제장벽에 적극 대처하여야겠다.

수출보쇄... 환경경영체제 조기구축이 살길

국제환경규제장벽과 극복방안

리까지 산업체의 모든 경영활동이 환경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여 인증을 해주는 제도로서 개발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가 보다 기업의 환경경영체제 전반에 대한 인증제이다. 선진국은 앞으로 자국 기업은 물론 수출국에게도 이 규격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 되는 바 ISO 1만8천시리즈를 획득하지 못한 기업체의 모든 제품은 수출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게 될 전망이다. 그리고 이 '환경경영국제규격'은 제조업은 물론 병원, 백화점, 해운업 등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하여 종합적인 환경경영체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경제전반에 걸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무역장벽의 극복을 위하여 먼저 오염원으로서의 기업은 환경보전을 귀찮게 여기거나 환경오염비용의 기업내부화를 기피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환경보전을 기업경영의 최대 목표로 삼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환경경영체제의 조기구축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를 위해 환경관련 투자를 대폭 증대시키고 환경친화적 전력

다. 스티플치, 환풍기 닥트교체는 15억, 전산망 자체개발은 시스템 분석·설계·인력배치등 몇십억규모. 이러한 개선사항과 예산산출에 학교당국은 항상 고개를 가로질렀다. 타대 도서관이 5천평규모를 유지하는데 비해 본교는 2천7백평인데도 동국학술문화관 준공이후 공간확보에 대해서 논의여지를 두지 않는 것이 학교행정의 양태다.

지난호에서도 대략 밝혔듯이 개개의 효과를 얻고 이용자의 편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10개년 전산화추진계획에 대한 지원도 확실할 수 없다. 전산화 계획은 이미 포함공대,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대학에서는 실정에 맞게 자체 개발중이거나 이미 가동중이다. 본교는 지난해 11월 슈퍼컴퓨터 수준의 UNIX를 전자계산소에 들여와 일단 이 컴퓨터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컴퓨터가 도서관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아니어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때문에 전산화 10개년 추진계획은 관계자 설명처럼 이제 책이 많고 적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CD-ROM등을 비롯한 소위 '전자BOOK'이나 도서관을 찾지 않고도 열람이 가능토록하는 미래정보사회에 있어 도서관 질을 가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일인건만 최근 도서관장서 전도서를 대상으로 486컴퓨터 구입도 아까운 학교행정책임자들에게 있어 이같은 사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불확실

장기	단기
공간확보	환기시설 닥트로 전면교체
전산화시스템 계획실행	소급입력 위한 PC확충
환기, 병난방 동조시스템 설치	인력추가배치
완전개장	조명시설 확대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계획)

도서관을 진단한다

환경개선사업과 남겨진 과제

이런 도서관은 없다. 본교처럼 역사 오래된 학교 대부분은 최근 몇년동안 도서관을 신·개축했다. 성균관대는 개축을 하면서 2년동안 학내구성원들의 불편을 감수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일면 부정적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례는 우리에게서는 부러울 일이 아닐 수 없다. 타대 조사를 해보아도 본교 도서관은 21세기를 지향하는 학술정보센터 역할을 커녕 일반적인 대학도서관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이 수년동안 학내구성원들이 부르짖어온 '도서관 혁신'의 결과다. 어느것 하나 도서관 환경 중 보아 넘길만한 곳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다수 구성원들은 '안될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로 도서관 교육환



경개선을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본교처럼 역사 오래된 학교 대부분은 최근 몇년동안 도서관을 신·개축했다. 성균관대는 개축을 하면서 2년동안 학내구성원들의 불편을 감수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일면 부정적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례는 우리에게서는 부러울 일이 아닐 수 없다. 타대 조사를 해보아도 본교 도서관은 21세기를 지향하는 학술정보센터 역할을 커녕 일반적인 대학도서관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도서관은 없다. 본교처럼 역사 오래된 학교 대부분은 최근 몇년동안 도서관을 신·개축했다. 성균관대는 개축을 하면서 2년동안 학내구성원들의 불편을 감수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일면 부정적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례는 우리에게서는 부러울 일이 아닐 수 없다. 타대 조사를 해보아도 본교 도서관은 21세기를 지향하는 학술정보센터 역할을 커녕 일반적인 대학도서관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도서관은 없다. 본교처럼 역사 오래된 학교 대부분은 최근 몇년동안 도서관을 신·개축했다. 성균관대는 개축을 하면서 2년동안 학내구성원들의 불편을 감수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일면 부정적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례는 우리에게서는 부러울 일이 아닐 수 없다. 타대 조사를 해보아도 본교 도서관은 21세기를 지향하는 학술정보센터 역할을 커녕 일반적인 대학도서관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사설

이제 해결의 장은 열렸다

-학생대표자회의를 맞이하며

현재 학생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몇가지 사안에 대한 해결의 분수령이 될 학생대표자회의가 오는 3일 열릴 예정이다. 많은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이 이 학생대표자회의에 쏠리고 있다. 그만큼 학생대표자회의에 거는 기대도 크다. 이번 학생대표자회의는 표류하고 있는 학생회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이번 학생대표자회의에서는 졸업준비위원회의 문제를 정확히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선을 명확히 해야하며 이후 졸업앨범제작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졸업앨범제작과 관련한 일체의 의혹도 제기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해야할 것이다. 이것만이 실추된 학생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안일 것이다.

두번째로 이번 학생대표자회의에서는 총학생회장 사퇴의사 표명 이후 공전하고 있는 학생회를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환원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총학생회장 사퇴 이후 학생회 체제에 대한 대안들은 각 단위의 입장으로 제안되고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첫째는 현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한 비상 총학생회 구성이고 둘째, 부총학생회장을 중심으로한 현 26대 체제를 유지하는것, 셋째 제27대 총학생회선거를 조기에 실시하는 방안 등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에 대해서는 각 단위마다 이견차가 존재하고 있지만 총학생회가 올바르게 서야한다는 것에는 모든 단위가 공유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학생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될 학생복지위원회나 총대의원회 문제역시 구체적인 실천 대안을 가지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찌됐든 이번 학생대표자회의는 반드시 학생회 정상화에 복무해야한다. 더 큰본들의 수렴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 진정 학생회 강화를 위한 학생대표자회의가 되어야 한다. 이제 해결할수있는 장은 열렸다. 해결하느냐, 못하느냐는 전적으로 대표자들의 손에 달려있다고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대표자들의 관심과 성의 그리고 적극적인 모습만이 혼란에 빠진 학생회를 구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학생대표자회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동약의 1만화생들은 더이상의 분열을 원치 않는 것이다. 학생대표자들의 지혜와 용기를 믿어본다.

중국판평



삼성「건설논문상」현상공모

삼성건설은 건설분야 기술력 향상과 저변확대를 통해 국내 건설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건설논문을 현상공모합니다.

- | 응/모/요/강 | |
|--|---|
| 1. 참가대상
● 각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전공불문)
2. 응모기간
● 1994. 8. 29 ~ 9. 6
3. 응모주제(7가지 주제중 택일)
● 사회간접자본 확충 관련사항
● 부산시공방직을 위한 대책관련사항
● 국내 건설기술 발전 관련사항
● 건설인력 육성 관련사항
● 저지세 실시와 건설업 관련사항
● 도시교통문제 해결방안 관련사항
● 국내건설업의 해외진출 전략 관련사항
4. 응모요령
● A4 용지 30~40매 내외분량으로 워드프로세서 이용 작성제출 (원고용지나 학교명이 표시된 리포트용지는 사용불가)
5. 시상내역 및 수상자 특전
● 최우수상(1명) : 상패 및 상금 500만원
● 우수상(2명) : 상패 및 상금 300만원
● 장려상(7명) : 상패 및 상금 100만원
※ 우수상 이상 입상자 일본 견학기회부여 (3박 4일) | 6. 작품심사
● 1차 : 삼성건설 자체심사
● 2차 : 삼성건설이 위촉하는 각분야 권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7. 입상자발표
● 1994. 10. 10 입상자에게 개별통지
8. 시상
● 1994. 10. 18 (삼성건설 창립기념일)
9. 제출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콘길타워빌딩 삼성건설 기획팀 (강남사서함 1430, 우편접수 가능)
10. 기타
● 수상을 하지 못한 참가자 전원에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15만원)
● 응모작품은 다른 간행물이나 논문집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국내외 저사나 논문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원천을 밝혀야 함.
● 입상논문의 저작권은 삼성건설에 귀속되며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삼성건설 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TEL : 527-1741 ~ 2) |



◇기획특집-제2기 한총련 출범식

평화 시위정착으로 백만학도 축제의 장 마련

문예상설마당 풍부한 기획에도 불구하고 홍보·준비부족으로 아쉬움 남겨

전야제

한총련 출범식의 첫 공식적 행사인 전야제가 5만여명의 학생,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조선대 대운동장에서 설총시 중앙대 총학생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행사는 제2기 한총련의 핵심기체인 '자주의 시대 그 길에 빛나는 백만의 영광 / 미국 반대 김영삼 타도의 자랑찬 성전에서 / 통일조국 건설로 내달리는 청춘의 승리를 노래하는 백만청춘의 애국의지'를 4부분으로 나누어 합창하는 것에 이은 사회자의 전야제 선언으로 시작되었으며 학생들은 환호성과 함께 미리 준비했던 종이 비행기 모자등을 던지며 행사를 자축했다.

이어 진행된 민가합, 유가합, 장기수 선생님들을 모시는 자리에서 권낙기(장기수)씨는 "모든힘의 근원은 새것이며 따라서 한총련 1백만 청년은 이시대의 주체며 증인"이라 말하고 "모범적 언행으로 민중을 앞서나가는 선도적 자세를 갖자"고 말해 학생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다.

부문계열 행사

한총련 출범식 행사 둘째날인 지난 28일 부문계열 결의대회 및 문화행사가 오전 11시부터 오후5시까지 조선대 교내 곳곳에서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부문별 특수성과 역량의 결집을 통해 조직적인 강화에 이뤄낸다는 목적으로 동아리 연합, 여학생회, 언론출판, 문화·예술, 농업등의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체대 앞 4거리에 마련된 '전국 동아리인 한마당'에서는 동아리 운동의 현황과 전망, 동아리연합회 협의회(동협) 건설에 관

한 방안마련과 문화공연등이 있었다.

양애리양 구명운동과 전야대합 건설이 주내용이었던 전야대합 한마당에 3백여명의 남학생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예년과 달리 처음으로 마련된 '전국문학일꾼 한마당'에는 문예 동아리인 1백여명 가량이 참석해 전국적인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외 본관앞에서 열렸던 언론열사 정신 계승을 위한 대학언론인 결의대회에는 1천여명이 참석해 부문의 조직화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전국 대학생 노래대 협의회(전대노협) 또한 각 총학생회연합(총연) 산하 대학생 노래대 1천여명이 참가해 다채로운 연대기반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이밖에도 크고 작은 행사가 17여곳에서 펼쳐졌으나 제대로 진행된 행사가 드물어 기본적인 조직화의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자위·조통위 출범식

한총련 출범식 본행사라 할 수 있는 학원자위추진위원회(이하 학자위)와 조국통일위원회(이하 조통위)출범식이 28일 오후 본출범식 이전에 치뤄졌다.

학자위 출범식 자리에선 제1기 학자위 위원장 장용준과 제2기 의장 최진선 군 등이 인사말을 통해 "교육재정확보,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통해 민족대학을 건설하는 길이 시급하다"며 출범선언문을 통해 "미국반대, 현정권의 교육재정 확보"등을 주장했다.

이어 벌어진 조통위 출범식에서는 범청학원 남측본부 의장단 회의결과를 발표하면서 북측에 제4차 남북 해외 재학생 통일대추진 사전 접촉을 제의했고 조통위위원장 장용준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흡수통일이 아닌 대등한 연방통일이 되기 위해 백만 청년학생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야한다"고 말했다.

한총련 본 출범식

이른날짜인 28일 조선대 대운동장에서는 늦은 11시부터 본출범식이 시작됐다.

한총련 문예단의 5월의 노래와 투사의 한길서막공연으로 시작된 본출범식은 12시15분경 이종욱(한양대)서훈연 의장의 "자랑스런 나의 조국 제2기 한총련 출범식을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시다"라는 개회선언으로 그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열기속에 광주출정사가 울려 퍼지고 애국의제가 있은후 전국연합 이창복 상임의장은 "5·6공의 씨로 태어난 김영삼정권은 이제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에 민주개혁, 농민, 통일운동은 전국연합이 단결 투쟁해야 한다"는 격려사를 보냈다.

뒤이어 격려사를 보낸 한총련의장 김현준은 어머니의 발언이 있을때는 출범식에 참가한 모든 청년학생들의 어머니의 말씀인양 진지하면서도 엄숙하고 평온한 분위



◇'불패의 애국대오'한총련은 지난달 27·28·29일 조선대에서 출범식을 가진 후 5월항쟁의 조속한 해결과 쌀수입개방 결사 저지를 위한 시민학생 결의 대회를 도청앞에서 열었다.

를 느끼게 했다.

그밖에 전국농민회 흥민 부의장, 전노대 권영길 의장, 전해투 조준호 위원장의 뜨거운 격려사와 경인총련 애국선봉대의 태권도 시범으로 1막은 끝이 났다.

곧이어 시작된 제2막에서는 영남으로부터 한총련으로 전대합 6년의 역사와 제1기 한총련의 투쟁모습 비디오 상연으로 투쟁의 열기는 가속화됐다.

가속화된 열기속에 한총련 영웅상에 조선공전 김봉현군, 김수경 통일문학상에 한양대 진재성군, 모범상에 경성대 신태재반의 시상식이 이어졌다.

또한 한총련 로고를 만든 '개구쟁이'기 획실과 진군가를 만든 서훈연 노래대 '조국과 청춘', 불패의 애국대오 모토를 만든 중앙상임위가 공로패를 수상했다.

한총련 제1기 김재용 의장은 고별사에서 "기기가 혼란 제2막의 시기였다면 2기는 투쟁하는 시기"라며 "앞으로 김영삼정부에 맞서 민족자주, 조국통일을 위해 부끄럽지 않게 투쟁할 것"을 당부하며 깃발 전달식과 함께 2막도 막을 내렸다.

3막에서는 전국각지에서 벌어졌던 반미 깃타도 투쟁의 봉화와 그 투쟁의 진두지휘자 중앙상임위 응림, 지역총화를 하며 백만단결로 하반기투쟁을 전개해 나갈것을 결의하고 한총련 문예단의 '복음'에 공연이 이어지며 막을 내렸다.

제4막, 백만의 단결을 무기로 미국반대, 김영삼타도의 자랑찬 성전에서 통일 조국 건설로 내달리는 승리의 길을 당당히 밝혀줄 새시대의 지도자라는 모토를 달고 김현준(부산대) 한총련의장 응림식이 이어졌다.

한총련 진군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차전을 타고 등장한 김의장은 "백승불패의 애국하는 조직으로서 기필코 다그쳐 나가야 합니다. 멈추지 않는 진군을 선포하며 인사드립니다. 기필코 적들에게 자주민주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을 보여줄 것"이라는 연설과 출범선언문 낭독후 불화살로

성조기를 소각시켰다. '불패의 애국대오 한총련'이라는 로고가 타오르면서 한총련 본출범식은 대원들의 막을 내렸다.

출범식을 마치며

"자주의 시대 그 길에 빛나는 백만의 영광 / 미국반대 김영삼 타도의 자랑찬 성전에서 / 통일조국건설로 내달리는 청춘은 승리한다"라는 총기치를 가지고 제2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김현준·부산대 총학생회장 이하 한총련)이 출범했다.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광주 조선대에서 학생5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출범식은 정권의 교묘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백만학도의 축제의 장으로 성대히 치뤄졌다.

이번 제2기 한총련 출범식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내용이었다면 평화시위의 정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초 정권의 탄압극면이 계속되면서 각종 언론에서는 '폭력시위가 예상된다'는 보도를 연일 계속했으나 결과는 경찰과의 별다른 마찰없이 평화롭게 출범식을 마무리했다.

이는 정권에 탄압의 빌미를 주지않겠다는 지도부의 의지가 표출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부문계열운동의 활성화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출범식 둘째날인 28일 치뤄진 부문계열 행사에서는 참가자 전원이 각자의 부문계열 조직에서 특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부문계열 행사의 분취지인 부문별 특수성과 역량의 집결을 통한 조직적인 강화에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었다는 것이 객관적 평가이다.

이외에도 문예상설마당의 풍부한 기획 등은 돋보였으나 여기에 못미치는 홍보와 행사준비가 못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여기에 매년 지적되는 점이지만 새벽 5시가 돼서야 끝나는 행사는 출범식의 긴장감을 덜어주는 측면도 지체도 나고 있다.

아췌든 제2기 한총련 출범식은 정권의 탄압극면속에서 출범식을 사수해왔다는 의미만으로도 백만청춘의 진한 감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출범식 취재낙수

"불패의 애국대오 한총련"

○...출범식중 김재용 의장과 대구대 부총학생회장 김덕순군의 공명점을 발견.

두사람의 말투가 비범(?)해 학우들의 눈길을 끌었던것.

김재용의장은 말이 풀릴때마다 '어~어' 소리를 반복하고 김덕순군은 모든 말을 두번씩 반복해.

발언을 듣는 사람보다 따라 하는 학우들이 더 많아 웃음바다.

○...한총련 출범식 전야제에 출연한 광주지역 노동자 문예운동 연합이 공연을 하던 조선대 운동장.

공연하는 이들은 '철의 노동자'를 열심히 부르며 학생들은 '전대합 진군가'를 거리낌없이 불러 듣는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노래를 할때도 학생신분은 벗어날 수 없는듯.

○...한총련출범식 마지막날 광주시내 가두행진에 나선 많은 학생들은 광주시민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는데.

이날 광주시민들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학생들에게 음료수병등을 담아 나눠 주었다고.

이에 물을 받아들든 한 학생 "광주시민의 이런 고마움을 봐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라고 말하기도.

○...한총련 출범식이 열리고 있는 조선대학교에서는 한총련 진군가가 울려 퍼지고 투쟁의 열기는 높아져만 가는데...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요금 오만원~10만원' 어디선가 나지막하고 우렁찬 어린이이 목소리와 손뼉소리가 나 눈길을 끌기도.

한총련 출범식에 참여한 광주시민과 학생들이 어린이에게도 통일정신을 심어 주는 미덕이...

○...백만청춘학도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했던 한총련 출범식에서 한 대학의 집단이민주적 행동으로 학생다수는 쓸쓸한 웃음을 지었다고 하는데.

평화대행진을 마친 후 모태대학은 먼저 도착했다는 이유로 타학교가 타기로 되어 있던 차를 타고 떠나버렸다는 것.

"멀리까지 와서 자기학교의 나쁜 인상을 심어놓고 가니 마음이 좋으실건가요?"

○...취학-취-취, 외!

차전을 타고 불화살을 성조기에 겨누는 능률한 모습의 한총련의장 김현준군이 삼세반의 미덕을 살려 웃음을 자아냈는데. 차전에서 성조기로 불화살이 미처 도착하지 못해 세번째에 명중한 것이 이유.

'불패의 애국대오 한총련'의 불꽃처럼 백만학도 모두 심신을 연마하는 것이 꼭 필요.

동약로

'운동이란...'

활시위가 당겨지고 의장의 손을 떠난 불화살이 초여름의 싸늘한 공기를 가르며 날아갔다.

순간 출범식을 맞으러 전국 곳곳에서 이곳 조선대로 모인 5만여명의 학생, 시민들의 "외~!"하는 환호성이 광주 하늘을 가득 메웠다.

성조기에 옮겨붙은 불길은 곧 자욱하게 솟아 오르는 검은 연기속에 한층 재로 변해갔으며 준비된대로 불길은 한 구절의 글자를 나타냈다.

'불패의 애국대오 한총련' 제2기 한총련이 한해 사업의 방향으로 내세운 모토이다. 한총련이 전대합의 한계속에서 거듭나기를 시도하며 대의원의 지력을 각 단과대 학생회장까지 확대시키는 등 변화의 모습들로 주위로부터 찬사와 긍정적 평가를 받으며 출범한 것이 불과 1년전.

그러나 제2기 한총련 출범을 맞는 지금의 시기에는 비단 정파관계를 떠나 한총련을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눈들이 적지 않다.

전대합시절의 '구국의 감철대오'와 별다른 바 없는 경건된 구호, 그래서 퇴보한듯한 느낌마저 준다.

이러한 한총련 1년의 기초와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였던 지난 4월 부산대에서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는 2백여명의 대의원이 집단 퇴직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비록 사업내용이 아닌 의사결정과정의 구조적 모순에 반발해 일어난 사건이었기는 해도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이 모두 한총련의 경직되어 있는 구조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별다른 바 없다.

출범식 기간중에는 '진보시대개혁단'이라는 좌파계열의 한총련 개혁모임의 선전자료를 한총련 관계자들이 훼손시킨 사건이 일어났다.

'백만 학생들의 구심체'로서 백만의 의견과 다양한 모습들을 받아 안아야 할 한총련으로서의 모습들을 기대하는 학생들에게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아닐 수 없었다.

3월간의 한총련의 모습을 바라보며 학우대중 모습의 뚜렷한 변화의 모습에 비해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려는 상위 단위의 의지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운동이란 움직이는 것, 변화의 흐름에도 앞서 나가는 한총련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하동혁 기자)



이석중	편집장
허동혁	기자
양수정	기자
박주영	기자
이유리	기자
윤전화	기자
이민영	기자
박대용	기자
문수정	기자
김현일	기자
박표신	기자
정현주	기자
김명희	기자

YUNDAI
기술의 현대 세계의 현대

21세기를 이끌 젊은 영웅은 누구인가?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 참가대상 : 대학생 (전문대 포함), 대학원생

■ 대회일정

구분	일시	장소
신청서 교부 및 접수	6/7 ~ 6/24	S/W 프라자부 (서울), 지점 및 서비스센터 (지방)
예선대회 (지역별 실시)	7/5	광주
	7/6	대전
	7/7	부산
	7/8	대구
	7/15	서울
본선대회 및 시상	8/19	서울지역 호텔에서 실시

■ 심사방법 : 개인 및 단체

■ 사용시스템 : H/W (본선) : 현대 솔로몬 메리트 GREEN PC (486급)
S/W : MS-DOS, C. PASCAL, FORTRAN, COBOL, BASIC 등

■ 출제내용 : 제한된 시간내 주어진 응용 Program의 작성, 컴퓨터에 관한 일반적 지식 테스트 예선의 경우 프로그래밍 시험은 제재시험 실시

시상 및 기타

구분	경진대회		공모전	
	개인	단체	작품	부상
대상	장학금 200만원 솔로몬 메리트 486급 PC	1 컴퓨터 교실 설치	1 장학금 300만원 솔로몬 메리트 486급 PC	
	1 장학금 100만원		1 장학금 200만원 솔로몬 메리트 486급 PC	
금상	1 장학금 100만원 솔로몬 메리트 486급 PC	1 상장 및 상패	1 장학금 100만원 솔로몬 메리트 486급 PC	
	1 장학금 100만원 솔로몬 메리트 486급 PC	1 상장 및 상패	1 장학금 100만원 솔로몬 메리트 486급 PC	
동상	2 CD VISION		2 솔로몬 메리트 486급 PC	
장려상	10 카메라 (AZ-300QD)		3 CD VISION	
행운상	5 무선출력기 (LESGO)			
	5 카메라 (AM-100)			

■ 참가대상 : 대학생 (전문대 포함), 대학원생

■ 참가방법 : 개인 또는 단체

■ 대회일정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6월 7일 ~ 6월 24일 S/W 프라자부 (서울), 지점 및 서비스센터 (지방)
- 작품접수 : 7월 11일 ~ 7월 23일 S/W 프라자부 (서울), 지점 및 서비스센터 (지방)

■ 심사방법 : 소프트웨어 작품별로 심사

■ 응모분야 : 기초, 응용, 교육용, 저자도구를 활용한 응용사례, 기타

■ 사용시스템 : 현대 솔로몬 PC 시리즈 또는 IBM PC 호환기종, Workstation

■ 운영환경 : DOS, WINDOWS, UNIX

■ 시상 : 8월 19일 (본선대회장)

■ 시상장소 : 소프트웨어 작품별로 심사

■ 시상장소 : 기초, 응용, 교육용, 저자도구를 활용한 응용사례, 기타

■ 시상장소 : 현대 솔로몬 PC 시리즈 또는 IBM PC 호환기종, Workstation

■ 운영환경 : DOS, WINDOWS, UNIX

현대전자

◇국제 불교 학술세미나 초록

세계속 불교, 역사적 사상적 입지상승

불기 2538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기념 국제 불교학술포럼이 지난 5월23일(월) 오후 3시부터 4시30분동안 L401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주제는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원장=오형근박사)과 불교대학(학장=리영자) 불교학과'이며 후원으로는 불교대학원 총학생회, 불교대학총학생회, 불교방송국, 불교신문사, 동대신문사 등 이었다.

아카시아 향내음이 가라앉아 가고 장미의 계절이 시작되는 화창한 날이었다. 전체 사회는 불교학과 학과장이며 불교대학원 교학부장인 필자가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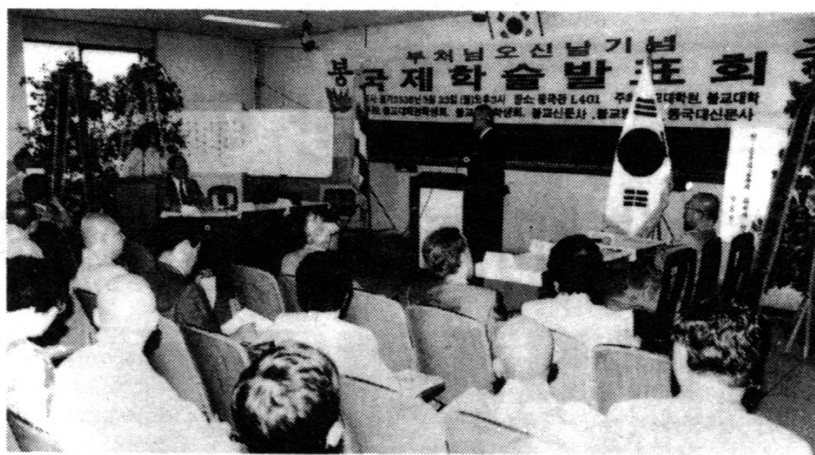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봉독으로 시작된 발표회는 원장의 인사와 본대학 총장인 민병천박사의 축사가 있었다. 불교대학원 전원생과 불교대학학부생들로 인하여 자리는 입추의 여지가 없이 꽉 메워졌다.

주제발표는 첫번째 중국북경대학교수이며 한국학 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양통방(楊通方) 교수의 '한·중문화교류 과거와 현재'라는 제목으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같은 한자문화권인 중국, 한국, 일본, 월남은 공통문화권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오랜 문화교류의 하나이다. 역사적 증거를 과거사학에서 살펴본다면 이미 고조선시기 이전부터의 문화교류는 기원 372년 이전 이미 불교와 경전을 보내 소수왕당대에 이미 국교로 불교를 선포하였으며 이러한 것은 기록이나 문헌을 그린 고분석실 등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나타나고 있는 선인(仙人) 왕자의 이야기는 중국중원지역의 신화이야기와 상통되어 종교적, 신화적, 사회적 교류가 진하게 인연 맺어

지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 삼조속나 월종의 두꺼비는 중국중원지역의 신화전설과 거의 같다는 이야기다.

백제시기는 384년 호승(인도승) 마라난타의 동진으로부터의 불교전달과 백제의 불상조각의 중국유조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백제불상의 그 미소까지도 중국불상과 상통되는 등 그 영향을 강조하고 신라, 고려 등의 혜초스님, 자장율사, 의상대사, 대각국사 의천등의 중국유학은 한중관계가 뿔래야 뿔수 없는 내밀한 인연의 관계임을 입증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신라의 왕자출신으로 중국 안휘의 구화사에서 수도하다 열반한 김지장(金地藏) 스님은 입적하신 석굴속에서 3년 동안 썩지않고 있어서 수많은 중국의 신도들이 지장보살의 화신(化身)으로 여기고 있으며 중국불교신도의 그대부분이 김지장스님을 중국의 지장부처님으로 추앙하여 그 입적지에 지장암(地藏塔)을 세우고 아침저녁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이곳이 오늘날 중국 사대불교명승중의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한·중교류의 새로운 융성시기를 전망하기도 하였다. 토론 참가자로는 교육대학원 원장인 사학과 교수 조영복(曹永福)박사와 경주 정각원장인 불교문화연구소 도연(이행구 교수) 스님이 현재 중국의 불교현황과 불교학과 교육내용 등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두번째 발표자인 나가노미 마사도시 박사는 일본계 미국인으로 미국 하버드대학의 교수로서 불교학을 강의하는 세계적인 불교학자이다. 주제는 '인도·중국불교의 자연관'이란 제목으로 오늘날 동·서양의 문화·사상속에서 동양사상이 차지하는 그



◇국제 불교 학술 세미나에서는 불교의 위상 정립에 대한 토론을 주제로 장장 4시간 30분에 걸쳐 열린 논의가 있었다.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특히 불교의 자연관(自然觀)은 때때로 많은 정경의 인간심성의 자비(慈悲: Compassion)로 돌아 가야 함을 일깨워주는 사상으로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오늘날 인간이 인간다워져야 하고, 사람이 사람다운 덕성을 실천할 때 거룩한 붓다(Buddha: 覺者)의 세계가 현실정토(現實淨土)의 세계로 나타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인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의 권위자인 노교수 나가노미 교수는 그 노교수에 불구하고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熱情)과 부처님에 대한 신심(信心)으로 긴시간 동안 발표하고 질문에 답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토론참가자는 이기영박사님과 선학연구소장인 최현각박사, 문과대학교수이며 불교문화학자인 홍기삼박사가 수고하였다. 열띤 토론과 영어통역은 때로는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고 많은 참고와 안목을 높여주는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끝으로 중국사회과학연구소이며 세계종교연구소장으로 있는 여대길(呂大君) 교수의 '중국의 소수민족과 불교'란 제목으로 발표가 있었다.

과거문화혁명과 공산당의 횡포, 종교탄압의 실상등을 설명하였고 광활한 중국경계에서 중국불교가 차지할 불교학과 불교의 위상 정립에 대한 토론을 주제로 장장 4시간 30분에 걸쳐 열린 논의가 있었다.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특히 불교의 자연관(自然觀)은 때때로 많은 정경의 인간심성의 자비(慈悲: Compassion)로 돌아 가야 함을 일깨워주는 사상으로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오늘날 인간이 인간다워져야 하고, 사람이 사람다운 덕성을 실천할 때 거룩한 붓다(Buddha: 覺者)의 세계가 현실정토(現實淨土)의 세계로 나타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인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의 권위자인 노교수 나가노미 교수는 그 노교수에 불구하고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熱情)과 부처님에 대한 신심(信心)으로 긴시간 동안 발표하고 질문에 답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토론참가자는 이기영박사님과 선학연구소장인 최현각박사, 문과대학교수이며 불교문화학자인 홍기삼박사가 수고하였다. 열띤 토론과 영어통역은 때로는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고 많은 참고와 안목을 높여주는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끝으로 중국사회과학연구소이며 세계종교연구소장으로 있는 여대길(呂大君) 교수의 '중국의 소수민족과 불교'란 제목으로 발표가 있었다.

과거문화혁명과 공산당의 횡포, 종교탄압의 실상등을 설명하였고 광활한 중국경계에서 중국불교가 차지할 불교학과 불교의 위상 정립에 대한 토론을 주제로 장장 4시간 30분에 걸쳐 열린 논의가 있었다.

조용길 (불교대 불교학과 교수)

컴퓨터이야기

고속 전송 통신망... 분산처리·신뢰성 향상 정보 시스템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를 연결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대화를 나누는 일은 이미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다. 컴퓨터의 활용가치가 커지면서 컴퓨터 통신이나 기업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네트워크 환경 구축은 일반적인 개념이면서도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통신과 네트워크, 이 양자의 개념은 조금 다르다. '통신'이란 상호간 의사전달의 수단이나 정보교환의 역할을 말하며 이에 반해 '네트워크'란 통신을 수행하기 위하여 컴퓨터나 주변기기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자원을 공유하도록 해 주는 집합체를 말한다.

컴퓨터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전화처럼 만들어 주는 모뎀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모뎀이란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전기신호인 디지털신호를 일반 전화회선을 통해 송·수신할 수 있도록 음성주파수 신호인 아날로그 신호로 변화시키는 동작을 하는 것으로 송신측과 수신측은 단지 서로 반대의 일을 하게 된다.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는 것을 변조(Modulation)라 하고 반대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것을 복조(Demodulation)라고 한다. 모뎀(MODEM)이란 명칭은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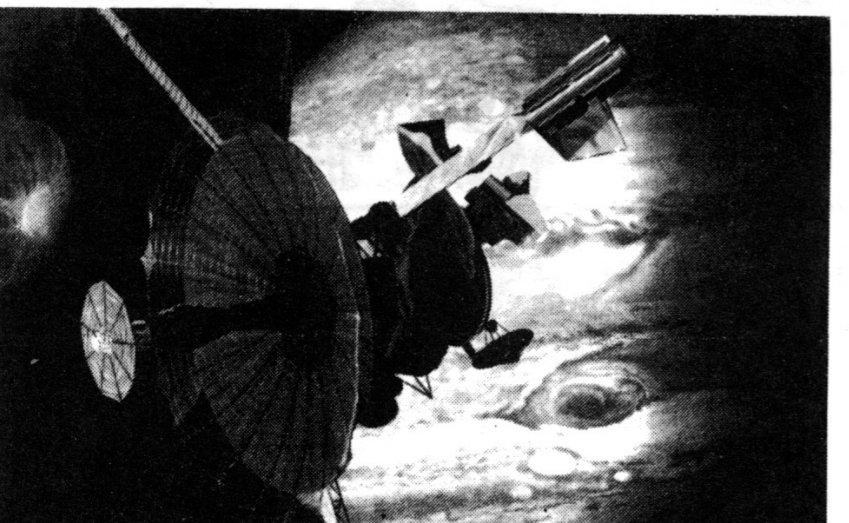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신망에는 전화회선을 통해 이용하는 '공중전화 교환망(PSTN)'과 '공중패킷교환망(PSON)'이 있으며 최근에는 종합정보통신망(ISDN)이 활성화되고 있다. 종합정보통신망이란 음성전달만 가능했던 전화서비스에서 문서정보와 화상정보를 첨가해 이들 모두를 전송로에 실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통신망을 말한다. 전기통신망과 컴퓨터가 결합된 고속의 통합망인 것이다.

공중전화교환망이 원거리의 컴퓨터 기기끼리 통신하는 것에 관한 것이려면 한 건물내에서처럼 멀지 않은 지역내 통신을 하는 근거리 네트워크(LAN)는 원거리 네트워크의 노드들에 접속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 연결된 모든 기기와 장비는 적은 비용으로 원거리에서 있는 노드들과도 통신할 수 있다.

인접기간의 데이터 전송에는 분산처리를 이용하는 것이 고속전송에 도움이 된다. 근거리 네트워크에서는 초당 수백만 bits를 전송하는 전송로로 동축케이블이나 와이어패어 케이블, 광섬유케이블을 사용하며 이렇게 연결되어진 고속의 정보통신망으로 자원의 공유, 분산처리, 신뢰성 향상은 물론 근거리망에 연결된 다른 기종간에도 쉽게 통신할 수 있다.

기업의 규모와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정보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LAN으로 컴퓨터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이제 당연한 흐름이 되고 있다.

지동철 (대성교육출판 전산편집실, 컴퓨터학과 94졸)



우주에서 이처럼 환상적인 충돌을 우리 세대가 볼 수 있다는 건 참으로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이러한 규모의 충돌이 일어나는 확률은 대략 1천년에 한번이라고 한다. 이번에 발견된 혜성은 1992년 7월7일에 목성의 대기상층부를 약 2255천 km 거리로 매우 근접하게 지나갔으며 크기가 약 1~4km사이인 약 21개의 조각들로 분해되어 버렸다. 물체를 실로 매달고 그 실을 잡고 돌려보자. 회전하는 도중 손가락을 실의 중심부근에 가져가면 실은 자연스럽게 그 손가락에 감긴다. 실이 감겨 실

과학 에세이 우주 대 충돌

목성과 슈메이커-레비혜성의 충돌

한쪽이 밀물이라면 그 반대쪽도 밀물이 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재미난 사실은 그것들이 길게 일직선으로 늘어져 분해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번 7월16일에서 22일 사이에 퍼져나갈 것이다. 우리가 목성을 관측한 이래 거의 변함없이 그 모습을 지켜온 목성을 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이때의 충격으로 인해 약 5일정도 동안 우리는 망원경으로 목성의 4개의 갈릴레오 위성들의 증광(받는 빛의 양이 급격히 많아짐)을 포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충격량이 되도록 크길 바라는 것이다. 만약 이 혜성들이 목성의 대기에 접근하여 산산이 부서져 버린 채로 충돌하게 되면 지구에서도 볼 수 있는, 유성들이 반짝거리다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밖에 보일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이번 혜성의 충돌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혜성들이 목성의 대기를 이겨내고 목

THE EARTH CENTERED VIEW

Venus, Mercury, Earth, Mars, SUN

Shoemaker-Levy Comet will smash into Jupiter, 1994. 7.16.

이 특성으로 다가오 7월16일 우리는 드디어 거대한 우주 충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충돌에도 불구하고 목성은 자신의 궤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그 장면을 4시간 후에 볼 수 있지만 목성에는 탐사 위성 갈릴레오가 가서 목성의 뒷면에서 일어나는 충돌모습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충돌로 인해 나오는 빛으로 갈릴레오 탐사위성이 반사되어 잠시나마 반짝거리기도 모를 일이다. 태양의 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리는 위성을 우리는 밤하늘에서 쉽게 볼 수 있듯이 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6인치 반사망원경으로 목성의 총 16개의 위성중 4개만 볼 수 있었지만, 이번 충돌로 생긴 빛다발에 의해 우리는 나머지 목성의 위성들이 증광되어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지구의 공룡이 멸종한 이유중 유력한 하나는 혜성의 충돌이라 한다. 지름 5백m 정도 되는 혜성이 지구에 충돌한다면 우리 인류는 멸망할지도 모른다. 이번의 목성과 혜성의 충돌은 바로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의 그림은 지구로 증광된 목성의 반대쪽에 가게 되어 목성 관측 최적기이다. 멀리서 슈메이커-레비혜성

정성욱 (자연과학연구회 천체분과)

대학생 하계연수

풍요로운 사회, 그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며 꿈입니다. 1924년 창립이래 70여년을 인간존중의 삼양문화를 바탕으로 보다 풍요로운 사회건설에 한 몫을 담당해 온 우리 6천여 삼양가족 모두는 보다 밝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대학생 여러분들과 이프거운 여정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산학협동의 차원에서 마련하게 된 하계연수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학문의 깊이를 더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삼양

구분	하계연수과정	어학연수과정
①연수기간	1994. 7. 18(월)~7. 23(토) 1주간	1994. 7. 1(금)~7. 30(토) 주 4일(월, 화, 목, 금) 강의
②모집인원	40명	30명(15명씩 2 class 운영)
③용도자격	4년제 정규대학 재학생인 2, 3, 4학년 대학생	4년제 정규대학 재학생인 대학생으로 서울지역 거주자
④선발방법	서류심사	어학수준테스트 (테스트 일정 및 장소: 지원서 접수시 안내)
⑤프로그램내용	• 삼양그룹 소개 • 공장견학 • 특별 사례연구 및 발표 • 교양강좌 • 일제개조성관련 • 비즈니스 게임 • 명승지 관광 • 단합대회 등	• 외국인 강사 초빙하여 영어회화 중심으로 어학강좌 어학수준테스트 결과에 따라 편입생(고급반/중급반) AM 09:30~10:20, 10:30~11:50 • 공장견학, 명승지 관광, 단합대회 등
⑥접수기간	1994. 6. 20(월)~6. 28(화) 평일은 17:00, 토요일은 12:00까지	1994. 6. 1(수)~6. 10(금) 평일은 17:00, 토요일은 12:00까지
⑦합격자발표	지원서 접수시 안내	지원서 접수시 안내
⑧지원서배부 및 접수처	본사 인사부 인사과(성적증명서 1부 및 반명함판 사진1매 첨부, 본인인 직접 작성 제출)	본사 인사부 인사과(학생증 사본1부 및 반명함판 사진 1매 첨부, 본인인 직접 작성 제출)
⑨기타	•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참가담배금과 고급기념품 지급 • 연수 참가비는 없음	• 출석상 및 우수수료상 시상 • 수료자 전원에게 고급기념품 지급 • 연수 참가비는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부 인사과로 문의 바랍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263(종로5가 지하)삼양빌딩 우편번호: 110-725
TEL: 740-7155, 7156

역사소설의 생성 조건을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사회역사적 결정론에 의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예만 보더라도 개화기의 역사전기류는 외세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애국계몽운동의 성격이 강했고, 1930년대에 유난히 활기를 띠었던 역사소설의 배경을 설명하는데 일제의 민족정신 말살정책에 정면으로 항거할 수 없었던 시대적 정황이 필연적으로 개입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역사소설은 현실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과 비판이 통제된 상황에서 현재에 대한 비유의 기능을 담당하는 '현재의 전사(前史)'로서의 의의가 높게 평가된다. 그러나 역사소설이 '현재의 전사'로서 역사적 교훈을 제시한다는 긍정적인 가치로만 평가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대의 현실 문제와 직접 대결할 용기나 의욕을 상실한 작가들이 과거로 도피하려는 패배주의적 의식을 알람리에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역사소설의 진실성

작가가 역사 재구성한 작품 많아
"반역사적·주관적 진단 배제해야"



"역사에 대한 순객관적 해석은 불가능하지만 역사적 진실을 호도하는 상상력은 왜곡된 역사인식을 이식할 뿐이다"



◇'토지와 영원한 제국'은 역사소설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대표작품이다.

역사소설가들에게 늘 따라다니는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는 역사(史實)와 소설(虛構)이라는 상호모순되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역사적 사실의 재현에 충실할 것인가 아니면 작가의 의도에 따라 사실을 굴절·변형시킬 것인가에 따라 작품의 성격과 지향점은 현격히 달라진다. 전자는 전통적 역사소설이 취해왔던 관점으로 특정한 역사적 시기의 성격과 역사의 본질에 대한 탐구에 초점을 맞춘다. 이에 반해 후자는 역사라고

하는 의외를 빌려 현재를 조명하려는 목적성이 강하게 드러나며, 작가의 주관적 의도나 이념에 의해 역사사가 사사화(私事化)된다. 1930년대의 역사소설이 대부분 전자의 예에 속한다면, 1970년대 이후 대하소설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으로 말해지는 '토지' '장길산' '태백산맥' 등은 후자를 대표하는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근자에 들어 사실의 충실한 재현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려는 정공법적 접근

방식보다 작가의 역사적 상상력에 의해 역사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려는 우회적 전략 쪽으로 역사소설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고 있는 듯하다. 북극일의 대체 역사소설 '비명을 찾아서'나 이인하의 '영원한 제국' 등은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역사에 대한 순객관적 해석이나 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시대적 환경이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필자는 믿는다. 비근한 예로, 우편항적 논리가 우세하던 시기에 폭력집단으로 백안시 당했던 빨치산의 행적을 새롭게 조명하려는 노력이 우리 주변에서 활발히 전개되는 것이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선 안될 점은, 작가의 역사적 상상력이 역사적 진실을 호도하는 반역사적 의식 태도마저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객관 현실의 규정성에서 벗어난 작가의 주관적

진단과 제시가 일반적으로 부각될 때 그것은 올바른 역사 이해에 전혀 도움이 못될 뿐 아니라 일반 독자에게 왜곡된 역사인식을 이식하는 결정적 패단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역사소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역사란 본질적으로 변화이고 운동이며 진보"라고 하는 카야(E.H.Carr)의 단정적 진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자세일지 모른다. 어떤 점에서 역사소설은 우리에게 역사는 진보가 아니라 반복일 뿐이라는 역설을 가르친다. 최근의 역사소설들이 가상의 현실에 의탁하여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는 것도 그렇고요. 현대와 특정한 과거의 상황이 놀랄만큼 유사하다는 작가적 판단을 반영하고 있다. 본격 역사소설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곤란하지만, 엄청난 판매부수를 자랑하며 주요 일간지에 하루 걸러 과대 선전을 하는 어떤 소설은 20세기 말 한-일전쟁에서 한국이 승리하는 사건을 결말 부분에 삽입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민족의 자존성을 고양시킨다는 긍정적 측면보다 말초적 애국심과 대미민족을 유인하는 부정적 측면이 더 강하다. 역사소설의 고유기능은 역사로서의 현재의 발견을 증진시키는 역사적 과정의 제시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G. 루카치의 지적을 결국 역사적 진실과 역사적 상상력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의 강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장 영 우
(문과대 국문과 강사)

달 하나 천 경 에

이기적 유전자



1895년 영국의 C.Darwin이 "종의기원(The origin of Species)"을 발표한 이래 자연도태의 진화론은 생물학분야 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과학 전 분야를 망라하여 지금까지 1백30년간을 학문적으로 이끌어온 논제였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하버드대학의 Wilson교수, 옥스퍼드대학의 R.Dawkins교수 등이 펼치는 사회생물학(Socio-biology)이 현재 우리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물의 영장이라 일컫는 우리 인간을 C.Darwin은 동물로 추락시켰고 다시 Wilson과 R.Dawkins는 유전자로 추락시켰다는 것이다.

자연도태에 의한 진화론이 우리 인간관에서 제1의 혁명기를 맞이하였다면 Wilson이나 R.Dawkins의 사회생물학은 제2혁명기를 맞이한 셈이다. 즉 모든 생물은 유전자의 운반체로 불과하다는 생각이 앞으로 언젠가 보급될지 자못 궁금한 바가 크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을 이기적 행동이라하여 손가락질하며 따돌리거나 흉을 보는 사례가 종종 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희생하거나 이롭게 하는 것을 예찬하고 포상까지 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을 행동학(Ethology, Animal Behavior)에서는 이타행동이라 한다.

그래서 전자를 이기주의, 후자를 이타주의라 한다. 그러나 동물행동학 측면에서는 이기주의적, 이타적행동은 결국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유전자보존적 행동인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생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중복보존을 유전자(Gene)라는 운반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R.Dawkins는 유전자란 "40여년전 스스로 사본을 만드는 능력을 가진 분자가 처음으로 원시 대양에 나타났다. 이 고대 복제자의 운명은 어땠던가? 그것들은 전멸하지 않았고 생존자의 명수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오래전에 자유로이 뿔뿔이 뉘어 버린 것을 포기하였다. 이제 그것들은 거대한 군체속에 매여있고, 거대하고 종종거리며 나아가는 로보트네에 안전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것들은 원적조정으로 의계를 교묘하게 다루고 있다.

그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존재한다. 즉 유전자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창조하였다. 이 유전자들의 보존이 우리의 존재를 위한 유일한 이유이다. 그것들은 유전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들의 생존 로보트기계인 것이다. 즉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프로그래밍 된 로보트 기계라는 것이다.

이 유전자 기계의 세계는 비정한 경쟁, 끊임없는 이기적이음, 그리고 허위로 가득차 있다. 이것은 경쟁자사이의 공격에서 뿐만 아니라 세대간, 그리고 암수간의 미묘한 싸움에서도 보여진다.

유전자는 유전자 자체의 유지 목적때문에 원래 이기적이며, 생물의 몸을 빌려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물의 이기적행동은 이때문이며 이타적 행동을 보이는 것도 자신과 공통된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행동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며칠전 신문, 라디오방송, TV를 통해서 아주 큰 충격을 준 사건이 터졌다. 즉 아들녀석이 돈때문에 부모를 살해한후 방화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는 것이다.

나는 이 사건을 보도하는 TV 화면을 보고 한동안 정신나간 사람처럼 아무일도 못하였다. 물론 방탕한 아들녀석이 문제이지만 요는 우리교육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입시제도가 그중 가장 잘못되었다고 본다. 학생 선발권은 대학이 갖고 다양하게 선발토록 해야 할 것이다. 때론 아바도 군의 부모는 자기 중독보존을 위하여 그의 아버지가 1/2의 유전자를, 또 그의 어머니가 1/2의 유전자를 배합하여 아바도군을 탄생시켰는데 이 이기적 유전자의 행동이 제이게이이 고장났는지? 아니면 합방부족으로 불량품이었는지? 도대체가 분석이 되지않는다.

앞으로 과학이 얼마나 더 발달하고 연구될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관이 동물에서 유전자까지 추락되지 않았던 만물의 영장으로 대접받던 옛날이 그리기만 하다.

김 주 필 농과대 농생물학과 교수

교환교수 수필
-미국에서의 봄을 보내며

3월 초 경주에 왔을 때는 아직은 겨울이었다. 나무 줄기에 막 녹색 기운이 들고 있었고, 짙갈 잎결이같은 꽃망울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런데 몇일 지나지 않아 몇번 바람이 불고 몇차례 가랑비가 내리자 봄은 곧바로 다가왔다.

비랑과 빗속, 여명과 깊은 밤에 생각나는 것은 역시 고향의 봄이었다. 양안석(王安石)의 '봄바람 불자 강 언덕에 또 녹음이 오도다' 백거이(白居易)의 '봄이 오자 감람이 꼭 빛처럼 푸르다' 또, '경지 좋은 3월 양주(楊州)에 가다' '밝은 아침 후 미진 풀목에서 살구꽃을 보았다' 등은 모두 고향의 봄을 읊은 불후의 명구들이다. 꿈 속에서 통통하게 보였던 것은 고향의 봄이었다. 정신 차려 보니 나는 경주의 봄 속에 있지 않은가. '꿈 속에서는 자신이 객(客)이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말이 정말 내 경우를 가르키는 말이 되었다.

경주의 봄은 아주 짧아라던 한국 친구의 말대로 정말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짧기 때문에 더욱 귀하고 한마디를 남길 만한 것이 아닌가.

북극사에서 나는 경주의 이른 봄

을 맛보게 되었다. 중국의 고사(古詩)에 말하길 '제상의 4월엔 꽃 향기 다하나, 산사(山寺)의 도화꽃은 그제야 핀다'라는 말과 같이 3월의 북극사는 길으로는 봄이 아직 오지 않은 모습이었다. 드문드문 남아있는 흰 눈은 아직도 산의 품을 그리워하고, 차가운 샘물은 겨울의 맛을 남기며 흐르고 있어 이 유명한 고사(古寺)에 그윽하고 고요한 멋을 더하고 있었다. 그러나 석굴암 불상의 신묘한 자세와 고승이 내놓은 맑은 차와 이사장님의 넘치는 정은 나의 마음을 말로 전할 수 없는 정다움과 따뜻함으로 가득차게 하였다. 맑은 정적이 감도는 고사(古寺)의 이른 봄은 만물의 번성을 기다리는 시절이었다.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어렴풋이 바다가 보였다. 뜬금없이 그 곳에는 해룡(海龍)이 있었다. 신라 문무왕의 안식 차라고 한다. 아니, 그의 영혼은 아직 안식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임종 시 바다의 가운데 문혀 자신의 조국을 지키겠다고 하였다니 말이다. 사람이 영혼이 있다면, 그는 또 할런 봄이 한국의 국토에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 지금은 바닷 물이 따뜻해지고 있을 것

"신라유적과 꽃비는
함축의 목계를 맺은 듯 하다"

이다. 평화를 원하는 인간들의 희망은 "언제나 봄"이기를 원하는 축원과 같이 영원히 불변할 것이다. 마치 하늘과 땅이 만세에 영원한 것 처럼! 내 마음에는 무언의 감동이 수구쳐 울었다. 인간들이 평화적으로 서로 대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히 봄의 따뜻한 속에 있지 않았는가? 또한 부처의 고심과 진리를 철저히 깨닫지 않았는가?

이른 봄이 총총히 사라지자, 곧이어 봄이 앓다투어 피는 날들이 있다. 고도(古都) 경주에 봄꽃이 많은 것을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다. 황금처럼 찬란한 개나리와 순백색의 눈부신 벚꽃이 동시에 만개하는 광경은 정말로 꿈같고 환상같고 깨어 있으면서도 취한 것 같았다. 보문의 벚꽃은 넓은 들만에 갑자기 나타나 있는 듯 하다. 하늘은 바다처럼 파랗고, 개나리는 불타는 듯한 황금색이고, 벚꽃은 순백의 연한 색이다. 이 색채들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 파랗고 노랗고 하얀색이 앓다투어 다가 올 때는 정말로 현기증나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섬세하면서도 소탈하고 맑고 연약하면서도 열렬하다. 바로 이 시간과 장소에서야 나는 비로소 벚꽃의 '아

름다움'을 깨닫게 되었다. 이는 일종의 "소박한 색의 아름다움"이다. 예를들면, 옛날 중국에서 송양했던 소박한 미인과 같다. 소박한 의상을 입었으나 옷맵시는 빼어나며, 평소 화장도 않고 보석으로 치장도 안하러 매려진 아름다움을 자연스레 간직한 그런 아름다움이다. 따라서, 벚꽃의 아름다움은 순수함에 있으며, 열렬함에도 있다. 순수함이란 녹색의 잎새로 장식치 않음에서 나타나며, 열렬함이란 활나게 피고 지는 순간성에서 나온다. 나 역시 청명절에 고분(古墳)의 공원에서 산보한 적이 있다. 그 때는 벚꽃이 지던 시기였다. 단 안팎과 발기슭과 둔덕, 흙중이 부는 곳마다 비처럼 꽃잎이 떨어지고 있었다. 벚꽃은 비처럼 제왕의 능위에 내리고 안압지의 호수 위에 떠 있었으며, 반월성 비(碑)위에 흩날리고 있었다.

일년에 한번 아니 해마다 한번씩, 꽃비와 신라시대의 모든 유적은 묵연히 마주하면서 미묘함과 함축의 목계를 이룬것 같다. 과거의 영혼과 열렬한 생명 그리고 끝없는 봄날의 환상은 경주의 벚꽃으로 하여금 운치를 다하게 한다. 조수처럼 밀려와 꽃감상하는 상춘객들은 벚꽃과 봄

을 쫓는 것이라기 보다는 생명을 쫓는다는 것이 맞는 말이다 것이다.

4월말에 이르러 벚꽃은 졌어도 대강은 꽃이 핀다. 앞에서 달려가고 뒤에서 계속하는 모양이다. 진달래·복사꽃·배꽃등이 온 산과 들에 널려 피며, 온시기를 가득채워 꽃의 바다를 이룬다. 이때 보문에 가는 것이 제일 좋다. 꽃의 바다를 가로지른 후, 현대 호텔 호수가 커피슌에 앉아 혼자 한잔을 맞볼 때, 석양이 서쪽으로 기울고, 어두움이 내리면 나무들은 어둠으로 물들인 것 같고, 봄날의 호수는 마치 취하고자 하는 것 같다. 그러던 당시도 봄날의 좋은 꿈을 꿀수 있을 것이다. 이 곳이 비록 이국 타향이라 할지라도 한 순간의 즐거워 돌아갈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봄이 있을 수 있겠는가. 또 이국에서의 봄날은 얼마나 되었는가?

주 호 양
(인문대 중문과 교환교수)

무·한·해·일·주·의 서비스/품질/환경

1994년 4월 27일- 태평양 사람 14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태평양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깨끗한 자연을 위해 노력하는 태평양인이 있습니다. 태평양 환경연구위원회- 환경문제에 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시작된 이 모임은 연구, 판매, 생산 각 분야의 태평양인 14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이제 실천이 필요합니다.

"저공해 제품에서 무공해 제품개발까지 저희가 책임져야죠." 태평양은 환경연구위원회를 시작으로 저공해 제품개발과 재활용품의 확충, 그리고 자연정화운동 등으로 환경보호 실천의 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이미 관심의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은 적극적인 보호활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환경에 대한 기업의 무한책임-태평양이 하나하나 실천해 가겠습니다.

동국기네스

본교 상징물

본교 중앙도서관에는 지금까지 본란에 소개한 제왕은기, 석보상절, 능엄경언해 외에도 1459년 조선조7대임금 세조가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첨삭, 합편해서 편찬한 '월인천보24권' 중 권7.8 (보물 745호)이 소장되어 있고, 역시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원간본 (보물 767호), 1464년에 간행된 '선종영가집언해'권상 (보물774호) 등등 이 루 열거할 수 없는 많은 고전들이 소장되어 있어서 관련 학문연구에 기여하는 바 크다. 다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점이 아쉬울 뿐이다.



눈을 돌려 본교에 있는 기념비적 상징물들을 일별하면서 연재를 마감한다. 본관 앞 잔디광장의 중앙에 자리잡은 '성상'은 1964년 총학생회의 발원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정문입구 오른쪽 언덕에 우뚝선 장각산, 1971년5월8일 건립된 코끼리상과 함께 종립대학인 본교의 상징물이다. 계산관 앞쪽 화단에 있는 동악선생신당(東岳先生詩壇)은 조선선조때의 동악시인 동악 이안눌(東岳 李安訥)을 기리기 위해 함께 교류했던 문인들이 시단을 세웠고, 후에 영조 임금의 명으로 동악의 4대손 주진(周鎭)이 위의 여섯 글자를 바위에 음각했다. 이 시단은 원래는 학생회관 맞은편 언덕의 암벽에 있었으나 지난 87년 그곳에 계산 고시학사가 들어 서면서 처음의 시단은 박물관으로 옮겨지고 지금 자리에는 새로

만든 시단이 세워졌다. 같은 해에 본관 옆에는 일제 암흑기에 본교의 전신인 명진학교를 나온 후 '님의 침묵'으로 겨레의 가슴에 불멸의 등불을 밝혔던 만해 한용운 선생을 기리는 시비가 세워졌는데 모두 동국 문화의 유원함을 보여주는 기념비들이다.



만해광장 옆 동산에 위치한 동우탑은 조국의 민주 제단에 고귀한 생명을 바친 고 노희두(李熙斗), 김중배(金仲培)군의 의로운 뜻을 기념하기 위해 1966년 당시의 총학생회가 건립한 것이다. 명진관 입구에는 안중근 의사가 기념회호비는 안의사의거 60주년을 기념해서 1969년 10월26일에 한 돌지기에 의해 건립되었다. 사범대가 있는 화림관 앞의 사제동행(師弟同行)비는 1984년 사범대 교수와 학생들에 의해 세워진 사제의 도리 존중과 참된 교육 실천 다짐의 비이다. (문화부)

영화의 패러독스

여균동 감독 '세상 밖으로'



여균동 감독의 첫 작품 '세상 밖으로'는 가치관의 변화, 세대간의 갈등, 진보하는 사회의 여러 통념에 대해 심각하게 사색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제목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인데, 등장인물들이 감옥소에서 나온 것이 세상의 바깥 구경을 위한 의미이기도 하고, 출거리를 다 보고나면 이 세상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인물들의 욕구를 세상밖으로 표현한 것 같기도 하다. 어쨌든 이 영화는 바로 지금 우리의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다. 관객들은 이들에게 심리적으로 동화된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을 심본 동조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인물들은 온전한 인격체로서 하나의 영웅상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우리 관객을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은밀한 '검은 욕망'을 드러내고 분출시킨 것이다. 이 세상이 더럽고 치사하다면 누구든 불만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욕구를 자유분방하게 드러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일 그런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 영화속의 세사람같은 인물일 것이다.

"영웅으로서의 주인공이 아니라 관객의 '검은 욕망'을 분출시킨 인물들을 통해 그 상황을 이해하고 동조하게 만든다"

세 명의 등장인물은 사회의 아웃 사이더이며 그들의 입으로 표현하면 '사회의 세균'이다. 살인범 쯤 도둑 골걸 세명은 의기가 투합하여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범죄의 양상은 겁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가고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그들의 최후는 어이없는 결말을 맺게 된다. 이 영화를 보면서 관객들이 어디 동질하는 것은 인물들이 온갖 욕설을 내치르면서 이 사회를 뼈째(?)하게만 바라보는 시선이다. 이 세명의 건달들을 동정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관객들은 웃고 박수를 친다. 브레히트의 말을 빌리자면 사실주의는 목적으로 수단으로 가능하다.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그 형식은 자유분방하다. 이 영화의 표현을 사실로 믿어서 곤란하다. 그렇다고 이영화의 양상은 은폐하고 있지 않다. 영화의 형식은 사실을 해체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영웅적 인물의 정당성이 사라지고 상황묘사를 더 집중시키는 현대영화의 한 특성이자이다. 정재형 (예술대 연영과 교수·영화평론가)

동악 통일노래 한마당을 보고

"동악 통일운동 맥 이어가는 행사"



사진은 동악통일노래 한마당을 수상한 '알라성'팀과 수상곡 '우리들의 이야기'악보

지난 5월25일 만해광장에서는 제7회 동악통일노래한마당(이하 통일노래)이 있었다. 모두 13개팀이 무대에 올랐고, 작년보다는 쾌활한 사람들이 모여 행사를 진행해 나갔다. 많은 이들이 아는 사실이지만 올해 동악통일노래는 실제로는 6회째다. 이유는 89년 첫번째를 전대협·한총련의 통노한과 맞추기 위해 2회로 상징한 것. 초기에 개사곡 위주에서 창작곡 발표로 많이 전환이 됐다고 한다. 이번 동악통일노래에서는 경성대 연합팀·지교과 학생회·민족사 연구회등 3팀이 개사곡을 발표했고 나머지팀들을 모두 창작곡을 불렀다. 창작곡이나 개사곡이 희수를 거듭함에 따라 상당한 수준이 되었음을 주지하는 바다. 주최측에서는 동악통일노래라

고 해서 통일에 관한 노래만 발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으나 통일에 대한 주제를 담은 노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사기준을 보면 행사의 성격이 좀더 명확해진다. 학생들의 구체적인 생활을 담은 것, 쉽게 따라 부를수 있는 것, 참신한 것, 예술성이 있는 것 등.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가한 사람들이 얼마나 단결성을 보여 주느냐에 있고 이에 상응한 팀도 있었다. 동악통일노래 한창 진행중이던 무대뒷편은 자신들의 순서를 기다리며 긴장을 내심 감춘 이들이 연습에 한창이었다. 때로는 연습하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와서 어리둥절해 하는 학우들도 보였다. 예술대 학생회 팀이 등장했을 땐 소가 등장해 노래에 멋을 더



했고 청년학생의 삶을 담은 연영과 소모임 '전진세남'의 창작영화 상영도 호응이 높았다. 밤이 늦어 끝난 동악통일노래의 최고상인 청년상은 사범대 국교과 노래패 '알라성'이 수상했다. 창작 노래 실력도 물론이거니와 새내기들이 무대를 뜻뜻함으로 장식한 것이 한류였다. 동악에서 통일노래한마당이 그 맥을 면면히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크다. '통일운동의 불모지(?)'라 불릴 정도로 눈에 띄게 나타나는 활동이 미미한 가운데 작은 부분이나마 완전히 사문화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작 통일을 앞당기는 것은 이 처럼 통일을 바라며 노래로써 하 나되는 것이 아닐까싶다. (이유리 기자)



A series of four comic panels with dialogue about Chungju and its culture. The characters discuss Chungju's history and the importance of its culture.

제1회 중구 예술제(가칭) 기획광고

중구 지역 문화 행사에 함께 할 친구들을 찾습니다.

제1회 중구 예술제(가칭)가 제기된 배경

올해는 서욱정도 600년과 한국방문의 해가 어우러진 뜻깊은 해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지역자치 단체장 선거 실시를 시작으로 지방화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한 역사적 의미속에 서욱 중심부에 위치한 동국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모아진 것으로 지역 문화 행사를 통해 지역민과 정서적 교류를 통해 열려 있는 대학의 이미지를 찾고 학교의 명예를 높인다는 생각에서 예술대 교수님들과 여러 학생회를 중심으로 중구지역 문화 행사에 관하여 발의를 하고 거고적 준비위 구성과 중구청등 중구지역에 있는 유관 기관과의 논의를 제기 하였습니다.

함께 할 일꾼 모집

- 1. 기획 요원 - 대 상 : 문화행사에 관심있고 계시는 학우 - 활동내용 : 행사에 대한 기획 전반을 고민하고 기획된 행사를 준비해 가는 역할 - 활동기간 : 6월-9월
2. 홍보 사적단 - 대상 : 용모단정할 남녀 학우 각각 10명씩 - 활동내용 : 중구내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선발된 홍보 사적단과 함께 중구내를 돌며 홍보 활동을 하는 역할. - 활동기간 : 6월-9월
3.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소모임이나 학생회 - 대 상 : 중구 구민들과 어우러지는 행사의 기회와 하고 계시는 학생회나 소모임(동아리), 준비과정에서 과 특성에 맞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위 문의 : 예술대학생회(전화 : 260-3669) 동대신문사(전화 : 260-3491)

마지막